



<b>코스피</b> 2067.85 (+26.11)	<b>코스닥</b> 697.50 (+1.03)
<b>금리</b> (연간 기준) 1.58 (-0.01)	<b>환율</b> (원/달러) 1182.10 (-8.80) (3일)



**[위기의 자영업자]**  
1년에 8000곳 문 닫는  
치킨집의 치킨게임  
03

# 화웨이 제재 반사이익? 삼성, 동남아 1등 굳힌다

삼성스마트폰 아태 점유율 11.7% 중국 제외하면 26.4%로 압도적 샤오미 15.3%, 애플·오포 11% 순 A시리즈로 중저가 주도권 대탈환 '갤S10'도 플래그십 시장서 주목



삼성전자가 동남아시아 스마트폰 시장에서 맹주 자리를 확고히 하고 있다. 중저가 시장에서 주도권을 재탈환한 가운데, 애플이 독점하던 플래그십 시장에서도 영향력을 확대하는 모습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최근 동남아 시장에서 점유율을 다시 높이고 있다. 최근까지도 중국산 스마트폰 공세에 1위를 뺏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다시 차이를 넓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는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점유율은 지난 1분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11.7%를 기록했다. 지난해(11%)보다 0.7% 포인트, 2년전(11.6%)보다도 증가했다. 중국을 제외하면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이다. 삼성전자의 중국 점유율은 1%대 안팎으로

떨어진 상태다. 중국 브랜드들이 내수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시장조사업체 IHS마킷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을 제외한 삼성전자의 아태지역 점유율은 26.4%에 달한다. 샤오미가 15.3%로 뒤를 따르고, 애플과 오포(11%) 순이다.

비결은 단연 'A시리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부터 최신 기능을 탑재한 중저가 제품을 앞세워 동남아 경쟁력 강화 전략을 추진해왔다. 갤럭시 A7과 A9 등이 주인공이다.

2분기에는 더 큰 성장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4월 출시한 새로운 제품인



태국 방콕에 있는 주요 통신사 매장들. 삼성전자 갤럭시 S10을 매장 가장 바깥에 배치하고 있다. /김재용 기자

A70을 통해서다. 조만간 A80도 새로 내놓으면서 점유율을 더 끌어올릴 전망이다.

시장 상황도 삼성전자에 유리하다. 최근 미국이 화웨이 제재를 가속화하면서 동남아 소비자들도 중국 브랜드를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현지 관계자는 "동남아 소비자들은 유튜브와 구글 등 글로벌 온라인 서비스를 가장 활발하게 이용하는 지역"이라며 "화웨이에서 구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는 소식 이후 중국 스마트폰을 향한 관심이 크게 줄어든

상태"라고 말했다.

중저가 제품뿐 아니다. 삼성전자가 올 초 내놓은 갤럭시 S10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멀티카메라와 인피니티-O 디스플레이 등 새로운 기능이 현지 젊은 세대에 긍정적 인상을 심어주면서, 올 초 출시한 무선이어폰 갤럭시 버즈 판매량도 크게 늘었다고 전언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동남아 플래그십 스마트폰 시장으로도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플래그십 스마트폰 시장을 독점하던 애플 아이폰과 정면 승부를 하게 됐다는 얘기도

이미 아태지역 애플 점유율은 1분기 9.3%로, 전년(10.2%)보다 1% 포인트나 떨어진 상태다. 동남아 소비자들이 아이폰에 높은 충성도를 보여왔던 것과 다른 분위기다.

마케팅 경쟁도 더 뜨거워졌다. 대만 중심가에는 삼성전자가 올 초 8번째로 큰 익스피리언스 스토어(체험매장)를 열었으며, 건너편에는 애플 스토어가 입점을 준비 중이다. 태국에서는 애플이 지난해 말 대규모 스토어를 새로 만든 직후, 삼성전자가 올 초 A70과 A80 론칭행사를 열며 맞불을 놨다.

현지 이동통신사들도 삼성전자 제품을 전면에 배치하기 시작했다. 최근까지도 중국 오포와 화웨이 영업에 무게를 뒀지만, 다시 삼성전자로 노선을 변경하는 눈치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지난해부터 카메라를 강화한 중저가 모델로 동남아 시장 공략을 강화해왔다"며 "갤럭시 S10과 갤럭시 폴드 등으로 혁신에 성공하면서 아이폰에만 집중됐던 플래그십 시장에서도 주목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평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불법 축산물 유입 안됩니다' 이계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3일 오후 인천시 중구 인천항 제2국제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중국 관광객들을 상대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을 막기 위한 불법 축산물 검역을 홍보하고 있다. /연합뉴스

## 미중 무역분쟁 불똥... 韓 수출감소폭 G20 중 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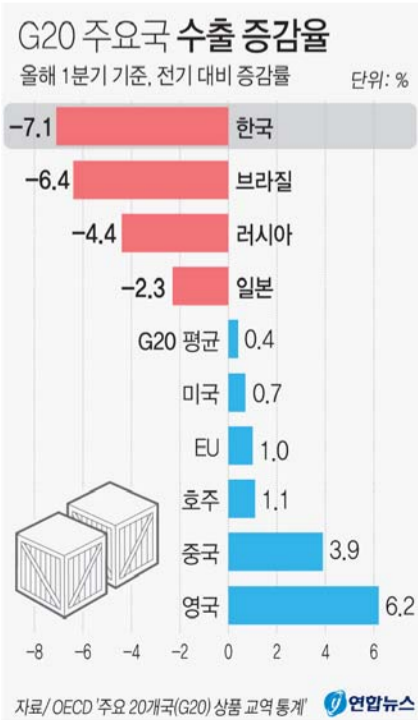
1분기 수출 전년 동기 대비 7.1% 감소

미국과 중국간 무역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한국 수출이 주요국 가운데서도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주요 20개국 상품 교역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1분기 수출은 1386억 달러로 직전 분기 대비 7.1% 줄었다. 감소폭은 G20 소속 국가 가운데 가장 컸다.

국가별로는 브라질의 수출이 6.4% 감소했고 러시아(-4.4%), 인도네시아(-4.3%), 일본(-2.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영국은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불확실성 탓에 교역을 늘리면서 수출이 6.2% 증가했고, 호주(1.1%), 멕시코(1.1%), 유럽연합 28개국(1.0%)은 1%대 증가율을 보였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세계 무역 시장을 흔들며 놓은 미국의 경우 오히려 수출이

0.7% 늘었고 중국도 3.9% 증가했다.

G20 전체로 보면 1분기 수출액은 3조 7천 126억 달러로, 전 분기 대비 0.4% 증가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1분기 수출입 통계가 아직 공개되지 않아 집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수입 역시 G20 가운데 두 번째로 약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의 1분기 수입은 1252억 달러로, 전 분기 대비 7.7% 감소했다. 인도네시아의 수입 감소폭이 15.3%로 단연 컸고, 브라질(-6.4%), 일본(-4.7%), 인도(-4.0%) 등이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미국의 경우 수입이 1.9% 감소했으며,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12% 급감하면서 역대 최대폭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 보더라도 한국의 수출 감소폭은 8.1%로, G20은 물론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석대성 기자 bigstar@

## '자본시장 활성화' 견해차 없어 국회 열리면 법개정 속도낼 듯

여야 정무위-금융투업계 자본시장 발전과제 논의

증권거래세 인하 첫 날인 3일, 여야 정무위원과 금융투자업계 최고경영자(CEO)가 한 곳에 모여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를 논의해 눈길을 끌었다.

민병두 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 9명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권영원 금융투자협회장, 김정각 금융위원회 차장, 김경민 금융투자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투자업계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민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자본시장 이성장하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고 펀드 시장이 성장해가면 국민 노후가 풍요롭고 안정화될 것"이라며 "자본 시장 일선에서 일하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대표들이 느끼는 제도 개선 필요 사항을 가감 없이 말해달라"고 했다.

야당 간사인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상임위가 열리면 효율적으로 의사를 진행해 금융투자업계의 노력을 도와 줄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며 "금융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관해 여야 간에 견해차가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권영원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특히 오늘 높은 국회와 정부가 한 뜻이 되어 증권

거래세가 인하되어 적용되는 첫날로 매우 뜻깊은 날"이라며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정책검토 및 법안심사가 시작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 ◆ 자본시장 개혁의 원년

정무위 여당 간사인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거래세 0.05%포인트 인하는 23년 만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행돼 의미가 있다"면서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자본시장혁신과제 10개 중 8개가 법률개정 사안인데, 자본시장 활성화에 관한 여야 정무위 의원 견해 차가 크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속히 국회개 의원들이 자본시장법을 꼭 개정할 수 있도록 논의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올해는 자본시장에 여러가지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사모펀드 투자문턱을 낮춘 '사모펀드 체계 개편 법안'은 이미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입법 발의된 상태다.

아울러 중소기업 자금증대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중소기업금융전문증권회사(CAB)' 도입과 '금융투자회사의 정보교류차단기준(차이니즈월)'을 '업권 단위'에서 '정보 단위'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올 상반기에 통과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2면에 계속)

/손영기 기자 sonumji301@